

익산시,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준비 박차

# 주 개최지에서 13개 종목 열려

육상·축구·야구 등 18곳서  
전북도 종합계획 바탕으로  
기본·세부추진계획 수립  
시 "역대 최고 대회 되도록 최선을"



2020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주 개최지인 익산시가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12일 조창구 익산시 경제관광국장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생활체육인의 최대 스포츠 축제인 2020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주 개최지인 익산시가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상하라! 찬년전복, 하나되라! 대한민국' 구호와 함께 펼쳐지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내년 4월 23일부터 나흘 동안 개·폐회식을 포함해 13개 종목(육상, 축구, 야구, 배드민턴, 보드빌딩, 에어로빅, 철인 3종, 검도, 볼링, 게이트볼, 국학기공, 족구, 풋살)이 18개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43개 경기종목(정식 39개, 시범4개)으로 선수·입원 등 6만여명이 참가하며 주 개최지인 익산에서는 개·폐회식을 포함해 13개 종목(육상, 축구, 야구, 배드민턴, 보드빌딩, 에어로빅, 철인 3종, 검도, 볼링, 게이트볼, 국학기공, 족구, 풋살)이 18개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성공적인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준비 박차 익산시는 성공적인 대축전을 위해 문화·경제·안전·참여체제를 목표로 도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기본계획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각 단계별·분야별로 정기·수시 보고회를 열어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전라북도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대회준비를 하고 있다.

▲생활대축전 대비 도심환경정비·체전본위기 조성

익산시는 대회 기간 선수단과 관람객들에게 쾌적한 지역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경기장 주변과 도로 가로환경 정비, 청결 운동 시민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며 주요 시가지와 경기장 진입로에 꽃길 조성해 아름다운 익산 이미지를 창출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하는 참여하는 대축전을 만들기 위해 각종 체육·문화 예술 행사 개최 시 현장홍보를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SNS 이벤트, 방송 광고, 홍보시설물 설치와 더불어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을 활용한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생활대축전 개최를 알릴 방침이다.

▲선수단과 관람객을 위한 교통·숙식 확충 주 개최도시인 익산시에 많은 선수들과 입원단·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과 숙박시설에 대한 방문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이전보다 한층 향상된 교통지원을 제공하고 선수단과 관람객 수요에측으로 최상의 숙박시설을 제공해 선수들의 기량 발휘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조창구 경제관광국장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대축전을 통해 익산의 문화와 관광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빈틈없이 준비하여 역대 최고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통해 익산시가 생활체육 스포츠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제3회 전북도학생수련원 스포츠클라이밍 대회'가 지난 8일 성황리 열린 가운데 참가 선수가 벽을 오르고 있다.

## 속도전 방식 스포츠클라이밍 개인전

전북학생수련원 대회 성황  
1위 남자부 장계공고 김영빈  
여자부 채순하 남원국악예고

학생들을 인솔한 박종규 교사(장계공고)는 "학생들에게 도전과 성공 경험의 기회가 된 것 같다 감사하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스포츠클라이밍이 학생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바라고, 참석한 모든 학생들을 응원한다"고 전했다.

대회 위원장인 박종규 원장은 "학생들이 배려하고 경쟁하며 하나가 되는 것이 본 대회의 취지"라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스포츠클라이밍이 학생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바라고, 참석한 모든 학생들을 응원한다"고 전했다.

'제3회 전북도학생수련원(원장 박종규) 스포츠클라이밍 대회'가 지난 8일 성황리 열렸다. 속도전 방식의 개인전으로 치러진 이날 경기는 올해 수련교육에 입소한 도내 37개교 중 사전 접수한 18개 학교 52명의 남녀 고등학생이 참여했다.

남자부에서는 장계공고 1학년 김영빈 학생이, 여자부에서는 남원국악예고 1학년 채순하 학생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또 참가자에게는 기념품이 지급되고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이 수여됐다. 남자부 1위를 차지한 김영빈 학생은(장계공고) "살면서 1등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평소 1회 대회에 참가해서 1위를 했는데 기록을 단축해서 그래서 더 기쁘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축구 꿈나무들 '플레이... 스타다... 인조이...'

전라북도축구협회(회장 김대은)는 12일 국립전주박물관 강당에서 200여명의 선수단과 가족이 모인 가운데 2019 전국초중고축구리그 및 K5, K6 권역리그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대한축구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가 공동주최로 'Play, Study, Enjoy'를 대회 슬로건으로 초중고축구리그에 전북 권역리그는 저학년 리그를 포함해 6개 부문에 58개팀이 참가했다. 이번 리그에 감독관 84명, 심판 534명이 파견됐다. 또 338명의 응급구조사 및 운영요원이 배치돼 선수단의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 지난 4월 7일부터 11월 3일까지 7개월에 걸쳐 진행된 동호인 대비전 시스템 리그인 K5, K6, K7리그는 도내 104개팀이 참가해 340경기를 치

## 전국 초중고축구리그·K5-6 권역리그 시상식 개최

렀으며, 상위팀은 상부리그로 승격, 하위팀은 하부리그로 강등되며,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동호인 축구선수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2019년 K5상위 입상팀인 전주시 파랑새팀이 상부리그 승격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대전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9 K5리그 챔피언십에 출전한다. 전북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 익산시축구협회 김응천 회장, 원주군축구협회 권승환 회장을 비롯해 리그운영감독관들도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전라북도축구협회 유

중희 전무이사는 "저학년리그를 2017년부터 실시하다가 2019년부터는 초등부에서 고등부까지 전면 확대 실시해 비교적 출전 기회가 적은 저학년 선수들을 위한 기회와 장이 마련된 점에 대해 만족스러웠다"며 "이번 동호인리그 역시 참가팀들의 여러 의견을 청취해 내년에는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리그를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7개팀이 참가하는 2019 전북도소년체육대회 겸 전북도축구협회장배가 오는 23일 오전 10시 전주완산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열린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축구협회는 12일 국립전주박물관 강당에서 200여명의 선수단과 가족이 모인 가운데 2019 전국초중고축구리그 및 K5, K6 권역리그 시상식을 개최했다.

##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

### 김제지평선산업단지

뛰어난 접근성

저렴한 가격

최고의 입지

**지평선일반산업단지**

- 면적: 90만평
- 분양가: 398,000/3.3㎡
- 유치업종: 자동차 및 트레일러, 1차금속, 금속가공 전자부품 및 통신, 전기장비 등
- 유치기업: 도드람김제FMC, 로얄캐닌, ㈜대성, ㈜일강, 대성정밀(주) 상동허브(주), 평안정공(주) 등 85개 기업

**자유무역지역**

- 면적: 90만평내 30만평
- 임대료: 66원/㎡
- 유치업종: 첨단업종, 신성장동력산업, 외국인투자집중유치대상업종
- 유치기업: 한국구보대(주), ㈜카셀, ㈜알룩스, ㈜씨아이이에프 등 31개 기업

**파격 지원혜택**

- 분양가의 최대 20% 보조금 지원 \*상시고용인원에 따라
- 국비 보조금 최대 125억원 지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용자금액의 3%이자보전, 최대2억원
- 산단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 \*1실/매월 최대30만원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으로 국세(법인세·소득세) 50%감면
- 지방세(취득세·재산세)75%감면